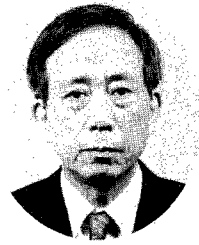


日本の 反原電活動과 言論動向 및 國民意向



石井 恂
〈麻布大學校 教授〉

1. 日本の 反原電運動

일본의 反原電 운동은 1988년 이후 양상이 일변되어 매우 격렬해 졌다. 이제까지는 原電 소재지주민이나 정치단체 및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原電 건설을 저지한다는 주장을 펴는 한편 보상금을 얻어내려는 투쟁이 전개돼 왔으나, 최근 가정주부와 젊은이들이 가세하면서 전국적 시민운동으로 변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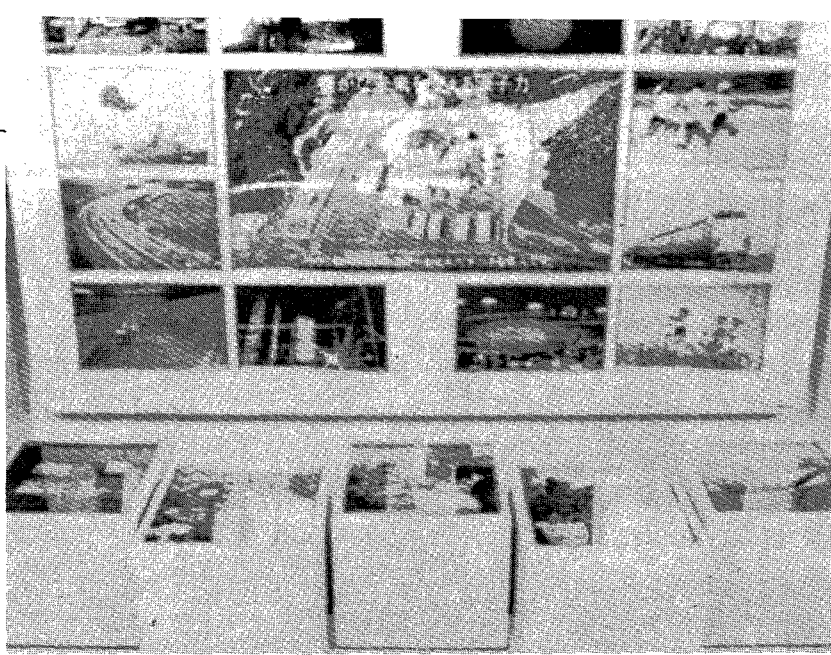
이러한 움직임은 1988년 2월 12일 四國電力(株)의 伊方原子力發電所에서 행해진 出力調整 運轉試驗이 동기가 되었다. 「출력조정」이라는 낱말에서 소련 체르노빌原電事故를 연상하게 된 한主婦가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자 전국 각지의 호응을 얻게 됐다.

이 반대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危險한 이야기」의 저자인 히로세 다카시(廣瀬隆)씨로서 그의 논점은 ① 電氣는 남아들

고 있다, ② 日本에서도 머지않아 대형 原電事故가 발생한다, ③ 방사선은 소량이라도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과학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부너층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조그만 연구회까지 합치면 반원전그룹의 수는 1,0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脱原電法の 제정을 목표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1989년 6월의 발표를 보면 120만명의 서명에 멈춰 있다.

1989년 7월의 참의원선거에는 反原電人士를 의회에 내보내고자 「地球그룹」, 「原電 필요없는 사람들」, 「生命과 綠色의 네트워크」 등을 결성했으나 이들의 총득표수는 647,000표로 전체의 1.15%에 머물어 비례대표 당선권인 984,000표에도 미달하는 저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社會黨에 많은 표가 흘러갔고, 自民黨마저 原電開發에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시민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같은 社會黨의 浮上은 앞으로 脫原電문제가 정치이슈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主婦들 중에는 1960년대 학원소요를 일으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제 子女의 양육이 끝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쏟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참의원선거에서 사회당이 대승한 것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言論動向

일본 언론은 原子力을 장래의 에너지기술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고, 石油대체에너지의 최선책으로 보아왔다.

1970년대에 들어와 일본 原電이 빈번한 고장과 사고로 이용률이 떨어졌음에도 言論은 크게 취급하지 않았고, 사실을 통해 「사고·고장을 극복하고 實績을 올리라」고 충고할 정도였다.

TMI사고와 체르노빌사고 이후에도 주요신문의 사설은 原電利用을 전제로 「이 사고를 일본 원전운영에 교훈으로 삼으라」고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8년 시민운동이 표면화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일고 있다. 많은 언론사가 여전히 原電의 不可避함을 들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반면, 몇개 신문은 「일본의 原電開發은 前進 뿐이었다. 이쯤에서

멈춰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 대중주간지도 시민운동에 편승하여 방사선 문제 등을 흥미본위로 기사화하여 原電에 대한 不安感을 더하고 있다.

3. 國民의 意向

체르노빌사고 이후 原電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原電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줄고 있으나 일본이 資源빈국임을 알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장래의 에너지로 原子力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본 국민중에는 原爆被害의 경험을 原電과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科學技術에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가 높은 이용률을 올리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 국민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볼때 「原電을 현재 보다 감소하라」 또는 「중지하라」는 의견은 소수이고, 「장래 電力의 主役은 무엇이나」는 물음에 60.6%가 原電이라고 답하고 있다.

原電을 지지하는 측에는 男性과 高學歷者, 경영자, 급료생활자가 많으며, 반대론은 女性과 젊은 층에 많다.